

# 실내디자인과 현대미술의 상관적 표현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ve Expressions Between Interior Design and the Contemporary Art

박진배 \*/ Park, Jin-Bae

이용완\*\*/ Lee, Yong-Wan

## Abstract

This study is concentrated on the specified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emporary art and the interior design by investigating their situational connections through the expression of their works. Each field of modern art makes expressive situation more complicated and transforms its unintelligible and expressive outputs variously. The expression is the basis of the incompatibility of the modern art which features the ambivalence of the various tendenc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s works as well as the disappearance of the typical genre of the art. The new expression such as the spatial recognition of the painting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real, experimental examples of the modern art enlarges its realm. The field interior design which has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fine arts need to make a new discussion or a theory among the progressive expression and the various tendencies of the art. Through this research, by reviewing the intermixed and expressed features of the artists works and designers projects which went far beyond the concepts and genr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expression tendency of the contemporary art and the interior design has been specified.

키워드 : 현대 디자인 양식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현대미술 분다는 그 표현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내포하여 고유한 장르의 영역을 분간할 수 없도록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르간의 개념이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현대의 많은 예술활동은 '공간'이나 '환경' 속에서, 영역의 수법과 의미가 혼용된 상태로 창출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한정된 영역과 고정된 시각 속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수법과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려는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활발하게 표출되고 있다. 또한 실내디자인의 분야에서도, 종합적인 예술의 장르를 포괄하는 확장된 사고로 새로운 표현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실내디자인의 표현 경향을 조형예술의 포괄적인 분야속에서 공간과 환경 속에서 혼용되어 창출되어진 수법들을 중심으로 그 관련성과 체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실내디자인의 위치와 표현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인지하게 하며 현대의 상호 공존하는 예술로서 작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 줄 수 있다고 본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미술과 실내디자인이 교차되어 표현되어지는 상호관련적 상황을 새로운 개념과 시각에서 비교 분석하는데 있으며, 현대미술과 실내디자인이라는 두개의 영역이 혼용되어 표현되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평면예술과 공간예술의 작품과 문헌을 중심으로 공통되는 표현성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이후 예술사조 및 그 사조에 속했던 작가들의 작품과 그에 관한 문헌을 통해서 두드러지는 표현성향을 고찰하고, 두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공유되는 영역을 파악하여 그 공통요소를 통하여 미술과 실내디자인의 상관적인 표현성과 작가들의 의지를 제시한다.

둘째, 근대의 미술사조들을 공간예술인 건축과 실내디자인에 대응시켜 그들의 개념과 표현된 결과 및 작품들을 구체적인 작품의 사례를 들어 규명한다.

셋째, 현대미술의 장르별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각각의 개념을 반영하는 실내디자인의 표현성을 분석하여 현대의 실내공간에 실현된 예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의 실내디자인과 미술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1-3. 연구의 방법

실내디자인과 현대미술의 상관적인 표현성을 고찰하는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문헌조사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표현적 상관성을 이론적

\* 정회원, 한성대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

\*\* 국민대 디자인 대학원

한 방법으로 문헌조사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표현적 상관성을 이론적 전개와 연관지어 예술의 본질적인 결과인 표현성을 중심으로 그 해석을 전개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진행은 먼저 실내디자인의 포괄적 입장과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 디자인의 근원적 배경이 되는 예술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또한 예술의 범주로서의 실내디자인을 미술과의 개략적인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미술과의 형성과정을 이해한다. 이러한 개념과 배경을 연구의 기초로 제공하고, 근대 이후 형성된 근대미술사조와 경향을 중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작가들의 표현의지와 상황을 정리하여 그들의 공유되고 있는 표현특징을 분류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공통인자가 형성되어진 각각의 미술사조를 중점으로 심층적 상호관계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미술의 각 장르와 실내디자인의 공통적 표현성을 선정하고, 각각의 개괄적 정리와 표현성을 분석하여 두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예를 정리함으로써 실내디자인과 현대미술의 상관적인 표현성을 파악한다.

## 2. 미술과 실내디자인의 탈영역과 확장성 개념

현대 회화가 제시하고 있는 오브제의 표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재료의 사용은 캔버스라는 이차원적 표현 구조에서 벗어나 회화의 '시각적' 개념을 '촉각적'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회화의 오브제 추구는 현대 조각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고 조각 분야는 새로운 재료와 건축, 환경과의 결합, 기술과학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새로운 조형이념을 개척하였다. 미니멀 아트(Minimal Art), 키네틱 아트(Kinetic Art), 팝 아트(Pop Art), 환경 예술(Environmental Art) 등에 있어서의 조각적 표현들은 회화적, 건축적, 도시 환경적인 개념을 표방하면서 회화, 건축, 도시환경 분야에 서로 영향을 미쳤다.<sup>1)</sup>

이처럼 회화, 건축, 조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새로운 영향을 끼치는 상호 연관성은 현대 미술에서 흔히 보게되는 현상이다. 한편 기능주의적 건축이념은 현대 미술, 디자인에 합리주의 정신과 국제주의라는 개념을 확립시켜 주었는데 현대 미술의 각 장르와 이론적 개념을 서로 공유하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예술에서의 공유되는 작가들의 예술개념과 표현의지는 어느 한정된 영역과 그것이 형성되어 왔던 전통, 진보 개념과의 유대 관계로 살펴볼 수 있다. 즉 하나의 형태는 발생의 내면에 동기성을 지니며, 새롭게 발생하는 현대 미술의 현상이나 개념도 과거에 나타났던 문제 의식과 상황을 계승하여 진보된다는 사실이다. 회화가 전통적인 평면을 거부하고 조소적 구성을 지향하며 조각은 현실적 참여를 획득하여 확장된 공간의 구조적인 표현을 추구하고, 건축이 회화와 조각적 표현 추구의 움직임과 도시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기능성을 추구하는 디자인의 영역이 새로운 실험적 작품을 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현대 예술 영역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야에서도 현실적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대로 접어들면서 대두되는 예술의 다양한 표현 상황은 시대적인 의식 변화에 따라 각 장르의 개념과 양상을 표출하고 있으며 현대에도 다양한 경향으로 표현되고 있다. 근대초 입체주의 화가

들은 화면에 나타나는 공간을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독립된 대상으로 인식하였으며 르네상스 이후의 원근법에 의한 가시공간과 구조적 통일성을 경험적 시각에 의해 분해하고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조형공간을 창출하였다. 세잔느(Paul Cezanne)의 작품에서는 전통회화에 대한 개념의 전복과 함께 공간의 개방화를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고는 파피아 콜레(Papier Colle)와 콜라주(Collage)<sup>2)</sup> 수법을 탄생 시킴으로써 회화가 외부세계와의 역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조형공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후 이러한 일상적 재료들을 회화와 연결시키는 예술과 비예술의 결합은 아방가르드(Avant-Garde)미학의 본질이 되었고, 일상적 주변물의 집합에 의한 새로운 양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현대미술에 나타나는 오브제는 현실과 예술을 접목시키는 창조 행위로 시도되었는데 인간의 현실 자체를 새로운 시각적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확장된 시각을 갖게 함과 동시에 예술의 창조적 행위를 순수한 자유 충동의 영역으로 전환시키게 하였다. 특히 미술의 중요 요소로서 오브제의 발견은 인간 행위를 인식과 대상뿐만 아니라 관념적 대상까지 포함하면서 일상의 공간을 수용하려는 확장된 조형양식의 창출이라는 근원으로 작용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 미술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예술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영역에도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다. 기존 가치에 대한 위계 질서의 파괴와 우연성에 대한 인식, 미와 추함에 개념, 회화적 공간으로의 확장 등 새로운 가치 기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술의 혁명적인 움직임은 건축과 실내 공간 속에 연결되어 자유로운 작가의지에 의해 심미적, 기능적인 사고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예술 형태를 추구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 3. 근대미술사조와 실내디자인

18세기부터 발달된 기술과학은 산업혁명으로 전개되어 사회, 경제, 문화적 삶의 양태를 급격히 변화시켰으며, 문명적 발전은 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낙관적인 미래상을 암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기술과학의 진보적 가속화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 암시하게 되었다. 그 후 예술가들은 예술 활동에서도 지금까지 경험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추구와 다양한 실험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기존의 가치, 형식, 개념 등을 배격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진보적 성향을 추구하려는 예술가들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더욱 표출되었다. 근대 초기 부터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의식들은, 예술분야에서 표현주의, 입체주의, 미래주의, 구성주의 등으로 표출되었다.

### 3-1. 입체주의 회화의 공간인식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원근법 자체에 의혹을 가졌던 세잔느(Paul Cezanne)의 그림에서는 기하학적 직선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회화

2) Collage: 본래 '풀칠', '빠르기' 따위의 의미였으나 전용되어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나무조각, 나뭇잎 등 여러 가지를 붙여서 구성하는 호화 기법 또는 그러한 기법에 의해 제작되는 회화를 가리킨다.

1) 이영환, 서양미술사, 박영사, P.448.

에서 사물과 입체공간을 기존 원근법의 직선 개념에서 벗어난 곡선이나 곡면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모든 자연의 형태는 원구, 원뿔, 원기둥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하학적 회화의 부흥을 예고하였다. 이것은 미술 조류들 가운데 회화와 조형의 차이를 보여주기 시작한 입체주의적 성향인데 전통적인 화풍보다 더 실제의 입체 상황을 담으려는 시도로, 물체의 표현을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하였으며 대상을 여러 방향에서 분해하여 한 화면에 재결합을 시도하려 노력하였다.<sup>3)</sup> 이처럼 세잔느에게서 암시받은 입체주의적 성향은 회화에서의 정체성을 제거하려는 기하학적 제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입체주의의 출발점은 세잔느의 회화에서 추구한 조형적 방법에 근거를 두고 출발하여 브라크(Georges Braque)와 피카소(Pablo Picasso)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소위 파피에 콜레(Papier Colle)란 수법을 통해 공간적 깊이감, 물체의 질감을 강조함으로써 회화에서 잃어버린 구체적 이미지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더욱 풍부한 표현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공간적 조형언어를 추구하였다. 공간의 특징을 그것을 보는 시점에 따라 변화함으로 공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조자가 공간 가운데 자신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이야말로 큐비즘의 중요한 공적이다.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이란 회화 작품에서 인체를 다양한 방향과 시각에서 본 것을 결합한 것으로서 완전한 의미는 아니지만 형태들을 분해하는 효과를 표출하고 있으며, 얼굴의 일부를 재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상을 단단한 형태의 집합으로 보고 분해와 재결합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구성을 창조하는 것은 회화의 공간인식에 기초가 되었다.



〈그림 1〉 세잔느, 목욕하는 여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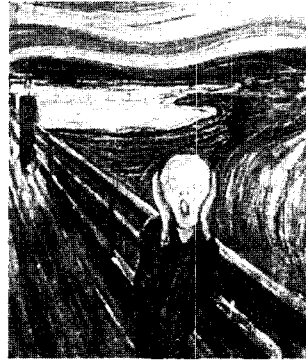


〈그림 2〉 피카소, 아비뇰 처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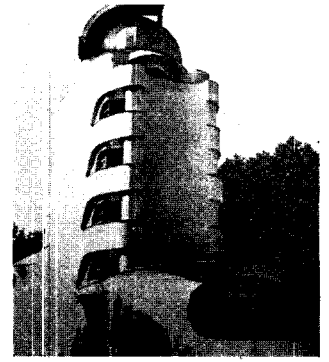
### 3-2. 표현주의와 작가의지

회화에서 표현주의적 성향은 자연주의와 인상주의가 대립되는 화풍으로 해석되는데, 이 '표현'이란 단어는 외부로 향한 내면적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현주의는 인상주의에 반대되는 경향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며, 프랑스 예술에 있어서 인상주의의 선취권을 부정하는 의미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이 표현주의는 회화뿐만 아니라 문학, 연극, 음악 등 모든 예술 활동 분야에 있어서 주제와 표현을 개인의 주관적인 표현형식으로 삼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외부의 실제 보다는 내면적 본질의 표현에 역점을 두었다. 회화의 표현에 있어서 작가의 주관적인 사실을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 묘사대신 정서적인 형상화에 의존함으로써 형태의 자유와 구성의 미학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뭉크(Munch)는 'The Scream'이라는 작품에서 화면의 휘몰아치는 감정의 압력아래 휩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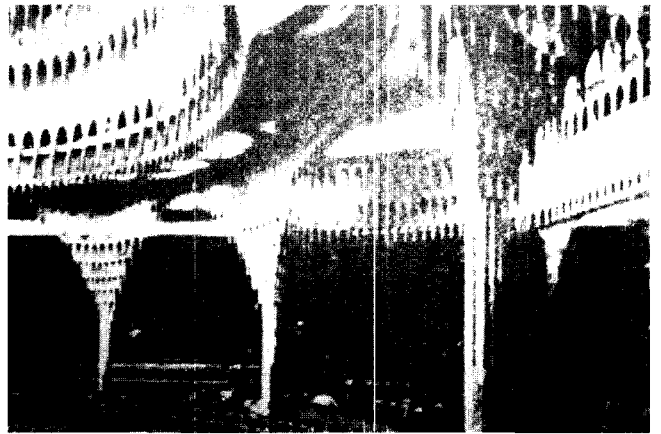
3) 금누리, 과학적 사고의 조형적 전환, 국민대 조형총론, 제 12권, P.254



〈그림 3〉 뭉크, 'The Scream'



〈그림 4〉 멘델스존, 아인슈타인 탑



〈그림 5〉 페르치히, 베를린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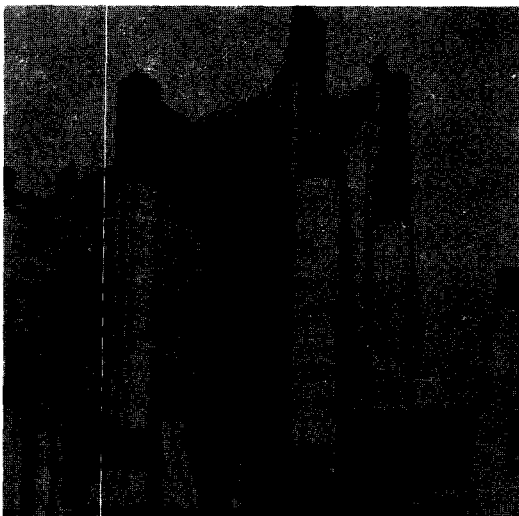
려 물결치는 표현으로 인간의 절망을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강렬한 선과 리듬은 인간의 내면적 고통을 표현하려는 작가의 감정, 즉 주관적 내면의 감정이 표출되어짐을 보여 준 예이다. 회화나 연극처럼 건축가들도 환상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치우치는 자아 도취적 성향을 띠었다. 이들은 자유를 강조하고 기술과 기존 문명의 탈피와 이지적 분석보다는 직관의 세계를 추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경향이 건축에서는 실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예술처럼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타예술 분야와 같이 사회를 개혁하고 이상주의적 의지를 표현하거나 감정적, 주관적 내면적, 성향을 추구하려는 공동된 노력의 의지는 계속해서 등장하였다. 멘델스존(Mendelson)의 아인슈타인탑은 독일 표현주의 건축의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암시된 표현성으로 역동적 움직임에 의해 구성된 건물의 뒤뜰은 인간의 삶의 변화를 야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페르치히(Hans Poelzig)의 작품에서는 동식물, 인체의 곡선을 이용한 조소적 조형언어로 모든 제약에서 해방된 형태를 추구한 금수탑을 볼 수 있다.<sup>4)</sup> 내부공간의 비스듬한 철골 지주와 파충류의 형태처럼 디자인된 계단에서는 역동적 움직임을 느낄 수 있으며, 베를린 대극장에서 보여지는 실내는 공간의 변이를 의도적으로 표현하여 답답한 폐쇄 공간을 거쳐 해방된 공간으로 유도되는 전이과정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표현주의적 성향은 내적 욕망이나 주관적 감정의 표출이 예술작품이라는 형식을 통해 외부로 표현되는 것이며, 강렬함이나 개성, 자기 진보, 선과 형태의 의미를 암시적 요소로 외곽하고 뒤틀리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 표면에서는 존재하는

4) 전영미, 20세기 실내 디자인의 조류, 기문당, 1994, P.45

외적 요소의 성질에 따른 불안이나 불확실성, 자기 비판적인 행동이나 행위가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표현의 추구는 개인주의적 자유의 희구로써 순수한 작가의 내적 감정을 표현언어로 승화되어 표출됨을 의미하였다.<sup>5)</sup>

### 3-3. 미래주의와 역동성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미래주의 운동은 보치오니(Umberto Boccioni), 카라(Carlo Carra), 발라(Giacomo Balla), 세베르니(Gino Severini), 룩솔로(Luigi Russolo)등의 '미래주의' 회화의 기술적인 선언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역동적 미학을 창출함으로써 예술 세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였고, 선동적인 어조로 기계의 위력에 의하여 출현할 새로운 세계를 환영하였으며, 과거의 전통과 단절을 선언하고 '전쟁과 애국심', '속도와 저돌성' 등을 추구하였다.<sup>6)</sup> 이와같은 시도는 과거의 인습에서 벗어나려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운동과 속도', '기계 숭배', '전쟁의 투쟁' 등 역동적인 테마가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으며 도시 환경의 복잡한 요소들을 포착하여 역동적 화면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건축가인 비르질리오 마르키(Virgilio Marchi)는 행위자에게 기하학적 도형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행위자들이 기계화와 기하학적 묘사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미래주의 운동은 먼저 문학 분야에서 등장하여 회화, 연극, 음악에 영향을 주었고, 건축 분야에서는 미래파 건축 선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선언은 기존의 모든 경향과 연속성의 부정이란 태도로 기계문명을 적극 수용하여 속도감과 다이내미즘을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결합하여 가동적 움직임의 미학을 전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역동적 아름다움을 조형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이미지를 찾아 볼 수 있다. 건축에서는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 형성에 적용하려는 이념으로 '전원도시', '미래도시' 계획을 지향하여 새로운 내일을 건설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생테



〈그림 6〉 생테리아, 미래도시, 1914

5)윤재희, 근대 건축에 있어서 표현주의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론, 1983, PP.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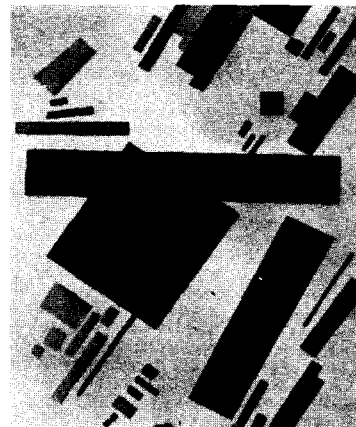
6)Nobert Lynton, 율난지역, The Story of Modern Art, 예경, 1995, P.26.

리아(Antonio Santelia)는 1914년 '신도시' 라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28년에 개최된 제 1회 미래주의 건축 전람회에서 '건축', '실내장식', '무대디자인', '전시 디자인' 등 각분야의 새로운 경향이 소개되었는데, 이들의 작품들이 계획안으로 끝났지만 미래주의 이념을 세계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7)</sup> 사실상 미래주의 예술가의 작품은 다양하였으나 일시적인 것으로, 그들의 이념에 담긴 작품이란 결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었으나 시도는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3-4. 구성주의와 현재성

볼셰비키 혁명의 격동 속에서 예술가들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세계에서 미술이란 더이상 개인의 일로 국한되거나 일부 애호가들의 미적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존재로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절대주의'와 '구성주의' 사조가 전개되어 발전하게 되는데 '입체-미래주의'의 공간개념에 영향을 받아 회화적 평면에서 점차 조형적이며 3차원적 표현으로 발전되어 갔다. 이러한 경향은 예술의 사회적 현실참여와 더불어 회화의 3차원적 성향이 회화, 조각, 건축간의 전통적 구분을 깨뜨려 버리게 되는 혁명적인 사건으로 전개되었다. '입체-미래주의'의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 추상 형태를 그리기 시작한 말레비치(Malevich)는 '절대주의 선언'을 통해 '대상 부재 느낌(The Feeling of the Absence of the Object)'을 주장하였으며, 절대주의 회화는 포스터 디자인, 상업미술, 장식 미술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sup>8)</sup> 말레비치는 기하학적 추상 형태 평면을 회화적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고, 가동적이고 입체적인 3차원적 구성을 출현시켜 절대주의 건축으로의 방향을 제시 하였으며 네덜란드의 데스틸(De Stijl),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와 교류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한 말레비치의 공간구성에 영향을 받은 리시츠키(Litzisky)는 회화가 건축 공간으로 전이되어 가는 중간 매체로써 'Prouns (Pro-Unovious)'를 제시하였다.

그는 회화를 섬세한 물리학의 세계보다 비현실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해석하면서도 그 영감의 원천은 물질 세계의 동격과 동시에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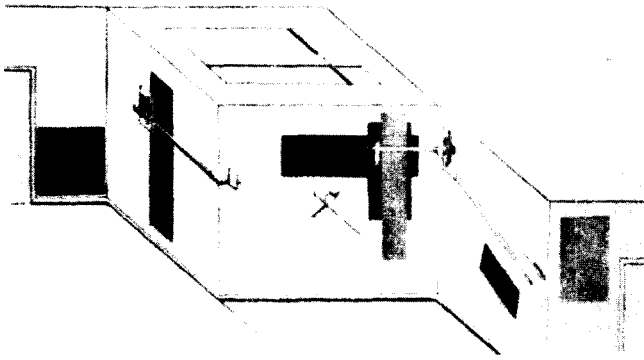


〈그림 7〉 말레비치, 절대주의 회화, 1915

적 유심론이 제시한 형이상학적 세계에 두려고 하였다. '프로운' (Proun)작품들은 회화에서 보이는 건축적 공간 형태와 3차원적 기하학 형태들이 공간 속에서 무중력 상태로 부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레비치나 리시츠키가 형태적 미학 실험을 탐구한데 비하여 타틀린(Bladmir Tatlin)은 현실 세계를 일종의 재

7)진영미, op. cit., P. 44.

8) Nobert Lynton, op.cit., P.124.



〈그림 8〉 엘 리시츠키, 프로운의 구성도, 1923

료로써 탐구하였으며, '제 3 인터내셔널 모뉴먼트(Moument to the Third International)' 를 위한 기념탑을 계획했는데, 파리의 에펠탑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400M 높이에 '코민테른(Comintern)'의 본부로 설계되었다. 이 계획안은 사회주의 혁명을 고양하기 위한 상징적 측면과 시간 속에 인간의 존재를 재현하고자 했으며, 재료와 구축의 과정이라는 현실성을 강조하여 3차원의 실제 공간과 다양한 재료간의 상호 관계를 탐구하였고, 예술가로서의 창조성과 경험을 통해서 일상의 문제점과 사회적 참여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구성주의적 성향의 예술가들은 자기 표현은 천재성에 의한 예술 개념으로부터 작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그 자체의 구조를 드러내는 물리학적이고 기계공학적인 개념으로 사회적 동참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작품에 새로운 논리적, 형식적 구조를 드러내야 하며 물질 고유의 특질과 그 의미성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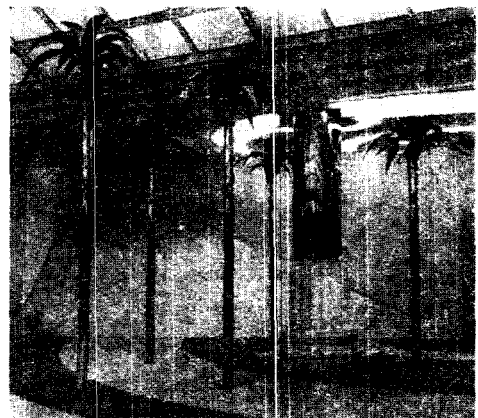
〈그림 9〉 타틀린, 제 3인터내셔널, 1920.

## 4. 현대미술의 경향과 실내디자인의 표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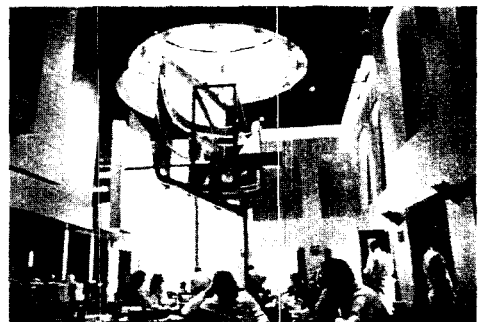
### 4-1. 오브제와 상징성

형태적으로 실내 공간에서 표현되는 구성은 작가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어떠한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 심상(mental image)을 가진다. 실내 디자인에서 표현되는 형태는 오브제적 장치물, 또는 구조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창조적 행위는 주어진 재구성에 의해 상징적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성은 근대에 이르러 장식의 배제, 합리적 기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에 인하여 상대적으로 표출되어졌으며, 현대로 접어들면서는 장소성과 대상물이 의미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형상의 인용을 통한 상징을 내포한 오브제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의 오브제는 조각이나 건축과 같은 외적인 형태(mass)로 표현되지 않고 실내에서 분산되어 나타나며, 이러한 오브제적 표현은 작가의 창조적 표현 추구로서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자율적인 수법으로 작

용되어 실내 공간에 풍부한 미적 감정을 전달시키고 있다. 대상과 이미지사이의 인습적인 관계를 수정하고 현실을 물리적인 상태로 환원 시킴으로서 존재의식이나 정신 작용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오브제의 탄생은 미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두시켰고, 현대미술의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홀라인(H.Hollein)은 비엔나의 오펜링 호프(Opening Hof)의 여행사 실내 디자인에서 금속 종려나무와 고전적 모티브를 응용한 스테인리스 스틸 기둥은 여행자들에게 다가올 여행에 대해 은유적으로 준비시키는 정서적인 긴장을 유발시키기 위해 상징적인 오브제적 연출을 시도하고 있다. 모포시스의 실내 디자인과 리노베이션에서는 기계적 이미지의 오브제적 표현을 볼 수 있다. 1986년 케이트 만틸리니(Kate Mantilini) 레스토랑에서는 포물선의 안테나를 밖으로 돌출시킨 것처럼 보이는 금속 재료의 오브제적 금속 해시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세다시나이 종합암센터(Comprensive Cancer Center)에는 대기실에 설치된 금속 오브제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 오브제는 특별한 구조적 기능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고인이 된 기증자의 업적을 나타내는 기념물로서 피난처와 거주를 의미하는 구조물로 유동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미술과의 연계에 노력한 게리(Frank Gehry)는 해체주의적 성향의 추상적 어휘를 가지고 오브제적 공간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불협화음과 단명적인적인 취향에 호소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구성적 조각을 이용한 실내공간 구성은 여러 해 작업을 같이한 오브제 작가 클레이스 올텐버그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sup>9)</sup> 이와같이 장소에 따른 컨텍스트가 내재되며 은유(metaphor)를 지닌 양의성질로



〈그림 10〉 한스 홀라인, 오스트리아 여행사, 1978.



〈그림 11〉 모포시스, 케이트 만틸리니, 1986

9) 김문덕, 일본 현대 건축과 해체적 지향, 건축사, 1990.06, P.42

나타나는 현대 실내 공간에 오브제는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각을 실내 환경으로 확장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예술로서 생활과 환경을 예술이 완전한 결합을 이룬 총체적 작품이며 공간적인 개념이 조각의 건축화를 형성하여 환경화 시키려는 의도라 볼 수 있다.

#### 4-2. 미니멀 아트와 간결성

미니멀 아트(Minimal Art)는 최소한의 예술이란 뜻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젊은 작가들이 최소한의 조형 수단과 표현으로 제작한 회화, 조각 등에서 그 어원이 연유되었다. 이 사조는 실내의 조각에서부터 분리된 형태 요소들을 배열한 작품등의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엄격함과 간결성에 영향을 받아 작가의 개인적 감정과 주관적 표현을 극도로 배제한 것으로 순수하고 무표정한 형태의 반복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미적 감각을 최대한 축소시키려는 경향은 현대 사회와 문화, 디자인의 다양한 표현 형식에 반대하며 실내 공간을 감정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며 극소화된 형태와 절제된 간결함으로 통일성을 공간 속에서 순수함으로 전환 강조하려는 표현 수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개념으로 파생된 미니멀리즘의 특성인 엄격함과 간결성은 실내 공간에 영향을 미쳐 더 이상의 건축적 표현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내 공간을 형성하는 천정, 벽체 등의 형태가 흰색, 혹은 무채색을 사용하여, 건축공간의 기본 구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장식적이고 시각적인 모든 요소를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sup>10)</sup> 이는 넓은 배관과 같은 토목 공사의 거친 재료와 같이 건축에서 피복되어야 할 방치 상태의 재료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공간속에 모든 장식적 표현이 억제되어 나타나는 형태로 실내를 단순한 색채로 칠하고 건축적으로는 전혀 표현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표면의 재료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향은 인간의 개성과 욕망을 회색화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스티븐 홀은 '페이스 쇼룸'에서 무겁게 짜여진 유리창문과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추구는 내부를 구성하는 복합적인 요소로 힘의 노출의 시도로 보여진다. 빔, 기둥, 덕트, 창문들은 모두 중량을 돋보이도록 꾸며져 건물내부의 필요에 맞도록 풀라주 되어 있다. 이러한 실내공간은 절제된 힘에 의해서 극적인



(그림 12) 스티븐 홀 페이스 쇼룸, 1986

표현을 내포하며 '백지상태의 세계'인 수동적 콘텍스트를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주관적인 표현의 억제와 다양함에 대한 반발로 극소화된 형태 추구는 실내공간의 순수함으로 환원된다. 특정한 위치에 놓여진 오브제로서 디자인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이는 극소화된 공간에서 거주자의 개성과 욕망이 오브제에 의해 표현되었

고, 장식적 역할을 함으로써 실내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성은 공사비, 유지비를 절감시키는 장점이 있으며 현대적인 미적 추구를 제공하고 있다.

#### 4-3. 팝아트와 대중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생산시설과 기술의 발전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체제를 구축하였고, 이러한 풍요의 분위기 속에서 소비주의가 사회와 문화의 지배적 성향이 되었다. 이것은 50년대 이후 미국문화를 특징 짓는 것으로 산업사회의 엄청난 성장은 제조업등에서 엄청난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왔다. 생산량의 증가는 소비자의 소비증가로 이어졌고 통신기술은 문화적 메시지의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일부에게만 향유되었던 고급문화의 수요가 대중적인 수요로 창출되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한 팝 작가들은 예술과 생활의 간격을 없애려고 시도하여 일상적 생활의 생산품을 현대미술의 문맥 속에 도입하였고, 대용물들을 차용하여 전통적 예술개념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고급예술과 대중적 예술을 동등하게 보게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한 팝아트의 특징은 계획적, 철학적 의도를 배제하고 순수한 감각에 호소한다는 점이다. 작가들은 경험된 일상생활의 요소를 첨가하여 모든 것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며 현실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대중 산업화에 양산된 모든 재료를 내면적 조형언어로 받아 들였다. 이들은 일상적 재료를 채택하면서 완성된 작품자체보다는 이미지 전달을 위한 시각적인 표현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회화에서 개성적 표현의 탈피로 현실세계를 가시화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방법으로는 콜라주(Collage), 아상블라주(Assemblage), 영화적 수법인 몽타주(Montage), 클로즈업(Close-up), 대중 이미지(Popular Image)의 반복과 같은 수법을 사용하였다. 로버트 벤츨리(Robert Venturi)는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이라는 저서에서 대중문화와 건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건축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1972년 발간된 '라스베가스의 교훈(Learning from Las Vegas)'에서는 산업사회의 실체인 대중문화와 상업주의 접목을 시도함으로써 현대도시의 팝적 충격을 인용하여 대중문화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찰스 무어(Charles Moore) 역시 대중문화에 관심을 나타내었는데 1966년 'Moore House'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슈퍼 그래픽을 사용한 실내를 구성하였으며 뉴올리언즈의 이탈리아 광장(Piazza d'Italia)에서도 다양한 오더(order)와 슈퍼그래픽, 네온을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팝아트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또한 조슈 슈바이처(Josh Schweitzer)는 보더 그릴(Border Grill)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 실내 공간에 남미의 전통적인 벽화미술에 영향을 받은 그래픽적 요소를 도입하여 식당의 이미지로 대중과의 호흡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지역적, 문화적 취향과 멕시코 식당의 이미지가 결합된 대중적 취향에서 표현된 예로 해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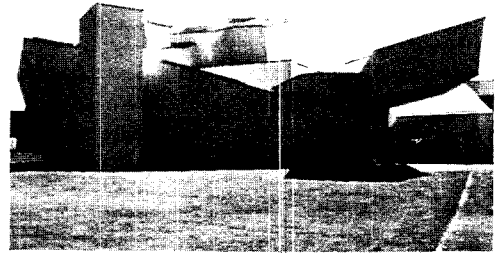
10) 전영미, op. cit., P.143.



〈그림 13〉 찰스 무러, 이탈리아 광장.



〈그림 14〉 슈바이처, Border Grill,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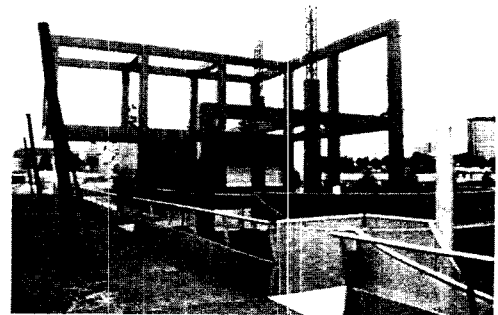


〈그림 16〉 프랭크 게리, 비트라 박물관

#### 4-4. 키네틱아트와 역동성

키네틱아트의 어원은 움직임의 의미를 가진 'Kineses' 라는 그리스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 움직임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예술이라 볼 수 있다.<sup>11)</sup> 이 움직임을 표현하는 키네틱 아트는 성격상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시각적 착시(illusion)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연상되는 옵아트(Op Art)적 양상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과학이나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실제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키네틱 아트(Kinetic Art)적 양상이다. 이같은 양상은 예술작품이 공간이나 환경 속에서 실제의 '움직임'이라는 요소를 공유하게 되어 현실세계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미술의 영역이 현실과 구분하려던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이와 같이 역동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예술은 과학시대와 신기술을 배경으로 예술의 다양한 표현양식에 확장을 제공하게 되어 라이트 아트(Light Art), 행위예술(Performance Art), 환경예술(Environmental Art) 등과 연관되어 표출되었다. 특히 공간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새로운 예술적 의미는 조형예술의 영역을 확장시켜 거대한 공간개념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이 필연적으로 현대의 실내공간에 도입되어 역동적 표현성을 가지게 됨으로서 예술형식의 자유로운 통합적 측면으로 발전된 것이다. 프랑크 게리가 디자인한 레스토랑인 'Rebecca'와 'Fish Dance'에서 등장하는 오브제적 성향의 물고기, 문어 등의 동물들은 움직임을 시각적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비트라 가구 박물관(The Vitra Design Museum)'에서는 건물의 내외공간을 각각 방향성과 연속적인 움직임을 발산하도록 구성하여 시각적으로 여러 측면들의 방향성을 고정시키기에 불가능한 면을 연출하였다. 베르나르 추미(Bernard Tchumi)의 사상적 배경은 아르

토(Antonin Artaud), 뒤상, 키슬러 등 20세기 사상계의 보이지 않는 커다란 줄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기능주의적 공간에서 벗어난 20세기의 새로운 공간으로 발전시킨 정신과 육체의 퍼포먼스를 건축의 개념으로 완성시키려 했다.<sup>12)</sup> 그는 영화 기법을 연상케 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각각 형태구성을 함에 있어 인간과 조형물의 움직임을 유도하려는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라 빌레트 공원'이나 '맨하탄 트랜스크립트(Manhattan Transcripts)' 등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간속에 사물과 인간의 운동을 서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공간의 새로운 해석을 재구축하려고 하였다. '라 빌레트'의 공원 폴리들은 영화적 기법의 해석으로 다양한 행위에



〈그림 17〉 베르나르 추미, 라 빌레트공원, 1983.

의해 보여지는 형태를 표현하고 음악적 리듬과 멜로디에 따라 움직임과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Moonsoon Restaurant'은 실내외 공간에서 비물질적 요소들의 도입과 가로지르며 기울어진 모서리로 뻗어나가는 듯한 선과 평면들, 불규칙한 형태의 색채들은 비정형의 추상적 디자인의 전형적인 예



〈그림 15〉 프랭크 게리, Rebecca



〈그림 18〉 자하 하디드, Moonsoon Restaurant, 1990.

11) 윤난지, 움직이는 미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론, 1991. PP. 2-6.

12) 김승희역, op. cit. PP. 297-299.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형태들의 가벼운 질감에 의한 이미지의 도입은 형태의 중량감을 소외시키고 불규칙한 디자인에 의해 회화적인 시각적 즐거움과 유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SITE' 그룹의 디자이너들은 한장의 그림이나 일루선의 세계를 통해서 현실로 존재하는 건축의 미완성과 붕괴의 세계를 실현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환경속에서 인간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작품을 제작하여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추구한다. 이들의 대표적인 작품인 'Best Showroom' 등에서는 붕괴되고 깨뜨러지며 실제로 움직이는 여러가지 시각적인 움직임과 반사회적 행위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움직이는 사물에 대한 경험이나 의식가능한 주제를 사용함으로써 고정된 형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주변 환경속에 실제적인 연출 효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형태, 공간, 구조의 탐구에 있어서 시각적 붕괴의 움직임과 실제적 움직임을 추구함으로써 건축을 설계목적이라기 보다는 예술적인 발상의 모체, 또는 주제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가의 작품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적인 통일감을 보여주며 공간 속에서 인간의 정보를 공유



〈그림 19〉 SITE, Best Showroom

하는 유기적인 실내공간을 보여준다. 이처럼 예술작품에서 공간이나 환경 속에서의 '움직임'과 같은 시간적 요소가 도입되었다는 점은 회화나 조각이 일루선에 의한 현실세계와 구별뿐 아니라 존재의 의미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건축, 실내디자인에서 광선, 움직임과 같은 비물질적 형상을 공간 속에 침투시키는 등의 기술과학과 결합되어, 시간적 예술인 음악이나 무용과 같은 공연 예술로 확장될 수 있음과 환경과의 결합으로 공공예술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키네틱아트의 역동적 움직임은 회화적 시각예술이나 조소적 공간예술에서 총체적 예술(Total Art)로의 방향 모색과 함께 인간의 감성을 움직이는 모든 조건까지 동원하려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어 현대미술의 향방이 시각적 표현의 범주를 탈피하여 삶의 현장 그 자체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비물질적 요소들은 선택된 오브제로서의 회화가 3차원적 공간으로 변환되고 건축, 조각 작품이 주변공간과 환경속에서 시간성을 획득하게 되어 새로운 조형적 시간예술화 될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 5. 결론

현대 미술에서 장르의 개념이 소멸되면서 표현상황들이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잃어 마치 통합된 예술처럼 보이는 측면과 작가들의 작품에서 개별적으로부터 파생되는 표현의 다양성의 성격속에서 현대미술과 실내디자인의 표현성향을 고찰함으로써 탈장르, 관념의 공유와 같이 상호 교차되며 표출되고 있는 성향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근대와 현대에 들어서면서 실내디자인은 예술의 범주에 포함되어 이를 통해 미술과의 공통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배경을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출되는 작가들의 성향은 미술의 확장성, 기술과학의 응용, 장식의 추구, 기능주의에 대한 반발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미술의 일반적 개념으로 되어왔던 일루선을 탈피하여, 미술의 현실세계에 동참하려는 작가들의 의지였는데 이러한 작가들의 의지와 성향은 입체주의, 표현주의, 미래주의, 구성주의등과 같은 근대의 미술사조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개념의 공간의식과 작가의지를 표명하며 발전되었다. 근대와 현대의 시기를 거치면서 미술과 실내디자인은 공통된 특징을 형성함에 따라 현대의 다양한 표현성과 개념의 공유를 기반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이와같은 발전과정을 통해서 정립된 현대 미술과 실내디자인의 표현적 상관관계는 오브제와 상징적 표현, 미니멀아트와 간결성, 팝아트와 대중적 성향, 키네틱 아트와 공간의 역동성 등으로 정립되며 환경과 공간에서 표출된 그들의 상호 관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실내 디자인을 건축적 관계로서만 파악하려는 기존의 전개방법에서 탈피하여, 포괄적으로 미술과 각각의 영역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상호 공존하는 예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의 표현에 대한 확장된 시각과 새로운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1. 김원갑, 현대 건축디자인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 페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1991, 홍익대 대학원
2. 배정환, 설치미술에 있어서 공간관념에 관한 연구, 1994, 명지대 대학원
3. 손선기, 예술로서 회화와 디자인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 1991, 이화여대 대학원
4. 윤난지, 움직이는 미술에 관한 연구, 1990, 이화여대 대학원
5. 이석주, 현대미술의 오브제 유형과 의미, 1980, 홍익대 대학원
6. 정병관, 현대미술의 동향, 1987, 미진사
7. 최유경, 20세기 미술의 전위적 성격에 관한 연구, 1992, 서울대 대학원
8. 최유미, 오브제 미술을 통한 디스플레이 디자인 표현에 관한 연구, 1989, 이화여대 대학원
9. John F. Pile, 박진배역, 미래디자인선언, 1995, 가인
10. Norvert Lynton, 윤난지역, 'The Story of Mobern Art', 1994, 예경
11. RoseLee Goldbeg, 심우성역, Performance Art, 1995, 동문선
12. 山明勝弘, 김승희역, 20세기 예술과 테크놀로지, 1995, 지성의 샘
13. Architectural Design, A New Spirit In Architecture, 1991, Architectural Design.
14. Chridtophe Canto, The History Of The Future, 1993, Flammrion Stanley Abercrombie, Architecture As Art, 1984, VNR

〈접수 : 1997. 2. 3〉